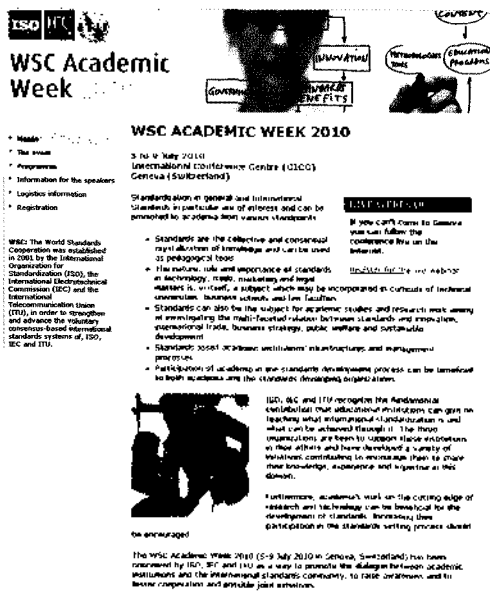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0 WSC 학계주간 열려

7월 5일~9일 국제표준 공동체와의 교류 확대 목표



표준의 채택이 확대될수록 혜택은 증대한다. 전문가, 사업체 그리고 기관에서 일반표준, 특히 국제표준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현재 학생 신분인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의사결정권자가 될 것이다. IEC, ISO, ITU가 공동으로 설립한 세계표준협력체(WSC, World Standards Cooperation)가 스위스 제네바 CIGG(국제전파연구소)에서 7월 5일~9일 일주일간의 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간은 표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국제표준 공동체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워크숍은 교육기관, 국가표준화기관, 정부기관과 산입계, 국제기구, 그리고 산업계와 인문기관의 대표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기업과 기구, 기타 국제기구에서 연사 초청

▲ 2010 WSC 학계주간을 홍보하는 IEC 홈페이지 화면

WSC 연사들은 Caterpillar Inc., Freescale Semiconductor, Schneider Electric, WTO, IEC, ISO와 같은 글로벌기업과 기구, 기타 국제기구에서 특정 기능과 역할에 따른 표준화의 전문적인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초청되었다.

표준화에 대한 소개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하다. 즉 직업을 갖기 전에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졸업생들은 표준이 국제무역과 시장 진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 그들은 설계, 건설, 제조, 마케팅과 국제 통상부문과 연계된 제품안전과 제품 적합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표준은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경영대학 또는 법학대학의 학과 과정에 포함될 수도 있다. 커리큘럼에는 기술교육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승인과 표준에 관한 교육경험을 확대하는 사례연구, 게임과 시뮬레이션이 포함될 수 있다.

학계와의 협력을 고취시키고, 학계의 우수성을 인식하기 위한 구성의 발단은 IEC 사무총장 & CEO Ronnie Amit와 ISO 사무총장 Rob Steele에 의해 발표되었다. 또한 IEC Challenge and Schools competition에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표준화를 소개했다.